

# 일본의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 사례

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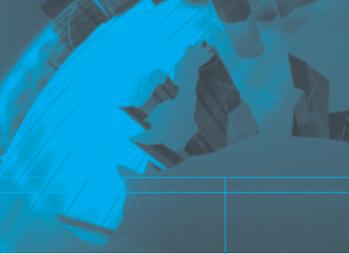
##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명 수준의 세계적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한 사망률은 보건의료 발달에 따라 더욱 낮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인구의 자연적 증감요인만을 감안할 때, 한국 인구는 인구변천사 중 후기균형상태(post-equilibrium balance)에 진입하여 인구증가율이 제로(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저출산·저사망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출산으로 인구규모가 줄어든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감소한다. 이 때에는 초고령화 상태에서 총인구의 절대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는 우리의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저출산으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력 자체도 고령화되면서 노동이동성 감소,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인력재배치 및 직업훈련의 효과성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사회보험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세입 기반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보장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사회적



도적 및 문화적 기반 취약, 인프라 부족 등 고령사회 대응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데다가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빨라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이미 상당수준 진척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직면하고 있어, 향후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동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각종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들과 직접 접촉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추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로 제습(Jessop, 1993)<sup>1)</sup>에 따르면 20세기 말 포디즘으로부터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흐름이 경제정책의 영역에서는 혁신과 구조적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압박하고, 사회정책의 영역에서는 유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포스트 포디즘 조절체제에서는 초국가적인 경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인 국가 기능보다는 분권적인 지방체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백종만, 2003).<sup>2)</sup> 외국 사례를 보아도, 스페인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로 중앙정부(nation), 지역(region) 및 지방(local)간의 유기적이고 통일된 정책실행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Grant et al., 2004).<sup>3)</sup> 또한, 스웨덴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과 건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요인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스웨덴 대사관 보고자료, 2006. 2).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추진

1) Jessop, B., "Toward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Preliminary Remarks on Post-fordist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0, Spring 1993.  
2) 백종만, 「한국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변화」,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일공동심포지움』, 2003.  
3) Grant et al.,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2004.

하는 데에는 한계성이 존재할 것이다. 다른 정책의 예로 보아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지시나 방침의 단순 집행·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정책수요·자원·재정·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원시책들의 경우 극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이시카와현(石川, Ishikawa Prefecture)의 저출산대응 사례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일본 이시카와현(石川, Ishikawa Prefecture)의 지역적 배경<sup>4)</sup>

2003년 7월에 제정된 일본의 차세대육성지원 대책추진법(New Generation Law)은 지방정부와 대기업으로 하여금 2005년 4월까지 차세대 육성을 위한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 중 이시카와현의 프로그램이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시카와현의 “육아에 좋은 기업 추진 협의회(Premium Passport Enterprise)”, “주간육아센터(My Daycare

Center)” 프로그램 등의 독특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카와현은 2005년 노동후 생성에서 제안한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Emergency Support Network)”에도 참여하였다.

지리적으로 이시카와현은 호쿠리쿠 지방의 중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토마현과 기후현, 남쪽으로는 후쿠이현과 접해있으며, 북쪽으로는 노토반도와 일본해가 위치하고 있다. 이시카와현의 수도인 카나자와(Kanazawa)시는 막강한 마에다 토시에(Maeda Toshiie) 봉건영주가 16세기 후기에 정착한 이후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마에다 가문의 통치는 매우 성공적으로 카나자와시는 학문과 예술 및 공예의 중심이 되었다. 카나자와시는 메이지 시기에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있었으며, 동경과 센다이 및 교토에 이어 네 번째로 국립고등학교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인구학적으로 이시카와현의 총인구는 1,169,539명(남자 564,307명, 여자 605,232명)으로 인구밀도는 279명/km<sup>2</sup>이다. 총 세대수는 425,417세대로 세대당 평균인원은 2.75명이다. 이시카와현의 2004년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수준(1.29명)보다 높으나, 인구증가율은 1995~2000년간 0.1%로 전국의 1.1%보다 낮다. 따라서 이미 1990년대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할 일부 현보다는 덜 심각할지라도, 이시카와현의 인구과소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http://www.pref.ishikawa.jp/kousei/shoushika/shoushi.html>,  
<http://www.i-oyacom.net/prepass/index.html>,  
<http://www.ishikawa-rofukukyo.jp/kinsapo/index.html>, <http://www.i-oyacom.net/main.html>

## 3. 이시카와현의 저출산 대책

이시카와현에서는 소자녀화가 계속되어 육아나 아이의 성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2005년(헤세이 17년) 3월에 차세대육성 지원대책추진법에 의거하여 “이시카와 엔젤플랜 2005(Ishikawa Angel Plan 2005)”를 제정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 중 “육아에 좋은 기업 추진 협의회(Premium Passport Enterprise)”에 의한 경제적 지원은 동 플랜의 경제적 지원(1-5)에 해당되며, “My Daycare Center” 프로그램은 모든 아

동 양육 가족에 대한 지원(1-1)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응급지원망(Emergency Support Network)은 이시카와 엔젤플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엔젤플랜 제정 이후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시카와 엔젤플랜 2005” 중 이시카와현 정책의 주요 특징이 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가. Premium Passport 사업<sup>5)</sup>

「육아 친화적 기업추진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경의 정

표 1. 이시카와엔젤플랜 2005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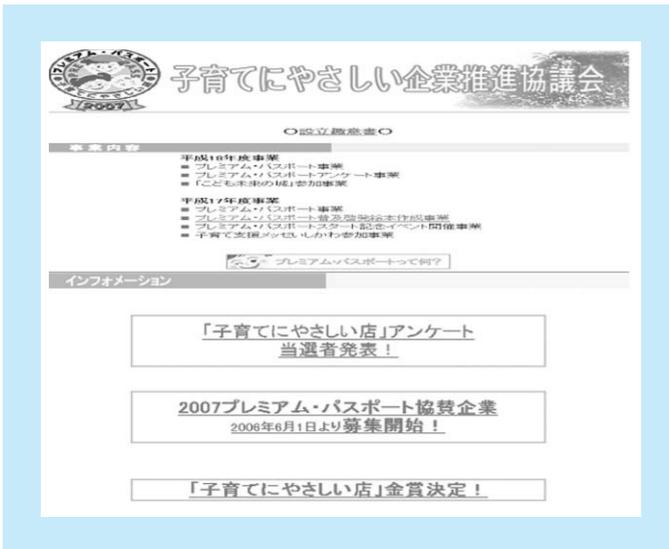
영역	세부 내용	
자녀양육지원 촉진	1-1. 모든 자녀양육 가족 지원 1-3. 자녀 양육 지원망 구축 1-5. 경제적 지원 확충	1-2. 육아서비스 증진 1-4. 건강한 성장 증진
일-가정 양립 제고	2-1. 일과 자녀·양육 양립 2-2. 사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 도입 촉진	
자녀양육 환경 개선	3-1. 주거·생활환경의 질 유지 3-3. 범죄 예방활동 촉진	3-2. 지역사회 안전 보장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4-1. 미래 부모 육성 4-3. 가족과 지역사회의 교육능력 제고	4-2. 생활능력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4-4. 자녀 유해환경 대처
모자보건 확보 및 증진	5-1. 모성 건강 및 의료치료 증진 5-3. 청소년 건강 증진	5-2. 자녀의료체계 개선 5-4. 식습관 교육 증진
요보호아동 치료 노력	6-1. 아동학대 예방 6-3. 장애아동 시설 확충	6-2. 한부모가정 지원
장려 및 계몽	7-1. 정보서비스 개선	7-2. 가치관 조성

출처: <http://www.pref.ishikawa.jp/kousei/shoushika/shoushi.html>.

5) <http://www.i-oyacom.net/prepass/index.html>.

비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Premium Passport 사업을 2006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기업들로 하여금 육아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촉진하여 육아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동 협의회는 이시카와 아동양육지원재단(Ishikawa Foundation for Supporting Child-rearing)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이시카와현의 '육아 친화적 기업추진협의회 홈페이지 내용'



자료: <http://www.i-oyacom.net/prepass/index.html>.

셋 이상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는 패스पोर्ट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패스पोर्ट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매년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가구는 셋째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패스पोर्ट를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월부터 1만 7,000여 대상가구 중 60%가 패스पोर्ट를 신청해 받았

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와 상점들은 패스पोर्ट 소지자에게 특별할인(예를 들어 10%)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소매점과 서비스 상점은 할인을 제공했으며, 일부 음식점과 호텔은 아이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일부 회사들은 특별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회사는 연간 5,000엔을 납부하고 참가 표시로 심벌 마크를 받는다. 2006년도에 1,212개의 지역 지점과 상점들이 참여했다. 서비스는 기업 부담이며 이시카와현 측은 패스포트 발행과 가맹점 모집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이시카와 아동양육지원재단에서는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 그림책 작성, 스타트 기념 이벤트 개최, 육아지원 메시지 참가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동 재단은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 앙케이트 사업과 2007도 프리미엄 패스포트 협찬 기업 모집 등을 추진하였다. 이외 육아 친화적인 상점 당선자 발표, 육아 친화적인 상점에 대한 금상

수여, 프리미엄 패스포트 회원이 직접 만든 그림책 <아버지의 것> 발매 등도 추진하였다. 2006년 1월 동 사업이 개시된 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많은 현에서 동 사업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오이타, 구마모토, 기후 현들

은 2006년 가을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일본 정부는 이시카와현의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노하우 제공, 협찬기업 홍보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조선일보, 2006년 4월 14일 사회 A8면).

그림 2. 이시카와현의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 회원 모집 공고'



은 2006년 가을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일본 정부는 이시카와현의 프리미엄 패스포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노하우 제공, 협찬기업 홍보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조선일보, 2006년 4월 14일 사회 A8면).

#### 나. 주간육아센터 프로그램(My Daycare Center Program)

주간육아센터는 고마수시(Komatsu-shi), 나나오시(Nanao-shi), 하쿠이시(Hakui-shi), 와지마시(Wajima-shi), 하쿠산시(Hakusan-shi), 슈바타시(Tsubata-machi), 나카노토시(Nakanoto-machi)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임신한 여성은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영아양육방법을 교육받는다. 출산 후 산모는 상담서비스와 3회의 무료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2005년 10월에 시작된 것으로, 이시카와현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대할 계획에 있다.

#### 다.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Emergency Support Network)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초과근무나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경우 등록된 구성원이 대신해서 유아를 돌보기 위한 육아지원체계로 볼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긴급지원센터(coordinator)에게 연간 천만 엔(¥)을 지원한다. 긴급지원센터의 기능은 비영리적 조직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시카와현의 경우에는 2005년 10월 이래 이시카와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의

센터(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초등학교 3학년 사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부부나 취업 중인 한부모이다. 이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 내 9개 센터 중 한 곳에 연락하면 조정관은 아동을 돌볼 자를 지정한다. 이시카와현의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목적

- 노동자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육아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 조직

- 긴급지원센터(본부)를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사이넨 3가 3번 5호 이시카와현 근로복지문화회관(프렌드파크 이시카와) 안에 둔다.
- 지역 내에 9개 지원센터(지부)들을 둔다.
- 이용회원 및 지원회원 조직화

- 이용회원은 이시카와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생후 3개월~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부모 또는 취업 중인 한부모

- 지원회원은 이시카와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자택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

- 지원회원은 일정한 자격과 환경이 요구되며,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긴급지원 사업(긴급시 1시간 맡아주기, 숙박하기 등)

- 갑작스러운 잔업, 숙박 출장 등의 발생시

일시적인 아이 돌봄

- 탁아소 등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일시적인 돌봄
- ※ 아동은 원칙적으로 지원회원의 자택에서 돌봄(단, 당사자간 합의시 예외 가능)
- ※ 이용회원은 서비스 시간당 700엔을 지원회원에게 지불

■ 긴급지원 체계

- 이용회원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정관에게 신청(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 지원 신청을 받은 조정관은 지원의 내용, 일시 등을 확인해 지원회원에게 연락(의뢰내용 이외의 지원 요구는 금지)
- 지원회원은 지원 후, 활동기록을 기입해 이용회원의 확인을 받음(활동기록을 1개월 1회 조정관에게 보고)

■ 긴급지원센터의 활동

- 이용회원과 지원회원 확대를 위한 현 내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홍보 실시
- 이용회원과 지원회원 모집 및 등록
- 지원회원(일반 시민,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보육사 등의 유자격자)의 확보
- 이용회원과 지원회원간의 연결
-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 도모를 위한 네트워크회의 설치
- 적절한 지원기능 확보를 위한 연수회 실시 등

■ 자문관(adviser) 및 조정관(coordinator)의 역할

- 자문관은 업무 총괄, 조정관은 이용회원

그림 3. 이시카와현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의 지원활동 체계도



과 지원회원간의 연결 업무를 각각 실시

- 자문관과 조정관의 협력 사항
- 홍보, 회원 모집 · 등록 · 관리, 지원활동 연계, 회원간의 문제점 해결, 관계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 도모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원회원의 연수회 실시 등

라. 이시카와현 양육지원재단 활동

그림 4. 이시카와현 아동양육지원재단 Oyacom 홈페이지 육아부모 위한 네트워크광장



자료: <http://www.i-oyacom.net/main.html>.

1996년(헤세이 8년) 10월 이시카와의 전역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이시카와 양육지원재단”은 저출산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재단은 오야코미넷(Oyacom)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http://www.i-oyacom.net/main.html>). 여기에서 정보획득, 컨

설팅, 게시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재단은 이시카와엔젤플랜(Ishikawa Angle Plane)이라 명명된 훈련, 컨설팅, 리서치, 계몽, 코디네이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한 컨설팅과 더불어 전화컨설팅

서비스와 백화점에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계몽차원에서 재단은 연 2회 저널을 발행하고, 고마슈시에서 한달에 한번씩 아동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비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동 재단은 결혼 촉진을 위해 미혼

표2. 이시카와현 아동양육지원재단의 주요 사업

구 분	세부 사업 내용
정보 제공·조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지원과 관련되는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업</li> <li>○ 육아지원 인재뱅크</li> <li>○ 육아핸드북의 작성</li> <li>○ 육아지원에 관한 연구 사업</li> <li>○ 보육서비스 연구</li> </ul>
인재 확보·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지원과 관련되는 인재 확보 및 양성 사업 실시</li> <li>○ 육아 supporter 양성</li> <li>○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연수</li> <li>○ 신(新)육아거점시설 종사자의 연수</li> </ul>
육아 상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다이얼 상담의 실시</li> <li>○ 백화점 등 휴일 상담실</li> </ul>
홍보·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園)육아 지원 홍보잡지 작성</li> <li>○ 이야기 광장 개설</li> <li>○ 육아 지원 메시지</li> <li>○ 신 행복 발견 사업</li> </ul>
육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근두근 육아교실의 개최</li> <li>○ 육아서클 활동의 지원</li> <li>○ 육아서클의 네트워크화</li> <li>○ 지역육아지원센터</li> <li>○ 이벤트 보육실의 개설</li> <li>○ 육아용품 재활용숍 개설</li> <li>○ 신 육아에 좋은 기업 추진 사업</li> </ul>
운영 협의회의 개최	○ 이사회·평의원회의 개최
현 위탁사업 실시	○ 신 육아 barrier-free 맵의 작성
기타 수탁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이시카와현 노동복지협의회로부터 수탁 사업)</li> <li>○ 신 가정교육지원 종합추진사업(이시카와현 가정교육추진협의회로부터 수탁 사업)</li> <li>○ 신 아동복지주간 개발 사업(어린이 미래재단으로부터 수탁 사업)</li> <li>○ 신 육아지원 심포지엄(어린이 미래 재단으로부터의 수탁 사업)</li> </ul>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 4. 결론 및 시사점

총인구는 지역단위 인구의 총합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가진다. 한 지역의 인구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조, 인구동태적인 특성 즉,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에 의해 변동한다. 물론 이들 인구학적인 요소들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기후, 지리 등)이나 인문사회적인 특성(지역의 사회문화, 지역경제, 인프라, 전통, 생활습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 요소들 중 사회경제적인 요소들과 정책적인 요소들은 외부, 즉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구 규모 및 구조를 국가나 사회 및 개인에게 유리하게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인구 변동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역간에 서비스 수요, 지역사회 자원, 기존시설 총족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이란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의미하나, 현재와 같은 통제위주의 평가, 보고위주의 지도감독방식이 유지될 경우 지역실정을 반영한 전략적 기획, 이에 기반한 정책집행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지방자치의 '자주적인' 개념을 강조하여 그 지방의 사회문화 환경과 주민 욕구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에

서는 거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할 수 없어 적합한 서비스를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특수한 욕구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통한 출산 및 자녀양육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정책 수행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과 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실행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밀착형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대응에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응 총괄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출산 대응관련 인력을 장기적·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재교육 포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에의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저출산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한다. 여섯째, 저출산 대응에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유기

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청회, 지역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일단 개발된 지역단위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책들 중 우수정

책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전국적인 설명회 또는 워크숍에서 시상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시적으로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확산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GSST](#)